

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35.80 (+15.78)		821.25 (-13.04)
	금리 (한국은행)		환율 (한·달러)
	3.878 (+0.040)		1372.35 (+3.75)

821조 슈퍼예산 확정... 종부세 공제 12억 '유턴'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확정

예산 12.8%, 93조 늘어 최대폭 증가
인공지능 부문에 최우선적 비중
'반도체 호황' 정부 총수입 881조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내년도 예산안이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 대비 12.8%(93조 원)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폭 증가 폭이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꾀한다. 이 같은 '슈퍼예산안'은 급증이 예상되는 세 수입에 기반한다. 내년 정부 총수입은 반도체 호황기와 맞물려 전년 대비 30.4% 증가한 880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투자자 반발이 높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도 현행을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기획예산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부문에 최우선적 비중을 둔다. 또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엔진 확충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주요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정책투자 방침을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1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3주간인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명태 등 19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인 18만3000t 공급한다. 농산물 4만9000t, 축산물 11만1000t, 임산물 2480t, 수산물 2만 규모다.

/뉴시스

프론티어(선도)급의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하고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베라루빈을 1만 장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및 유수의 해외연구자(20명) 유치에도 나선다. 이 분야에 5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700억 원을 들여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독자적 AI 보안모델도 개발한다.

나아가 이른바 '모두의 AI' 개발에 2조4000억 원을 쓴다. 정부는 "독자 AI 모델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2가지다.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해주는 공공 AI 에이전트와 여행·돌봄 등 민간 AI 에이전트로 나뉜다. 학생·구직자 포함 총 390만 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생애주기 AI 교육 사업'도 실시한다.

미래성장엔진으로는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전(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을 제시했다. 이들 분야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는 2조 원 이상을 쓴다. 반도체와 퍼지컬 AI, AIDC(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다.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과 충청권 첨단산업 산업이 주요 대상지다.

미래 모빌리티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차 지원을 기존 200대에서 3000대 수준까지 대폭 늘린다. 2030년 달 착륙도 시도한다. 발사체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6000억 원을 책정했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보조한다. 에너지 대전환 관련해서는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도모한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애 기자·서연정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메모리 수직 쌓고, 여러개 묶어... 데이터 처리·용량 확보

삼성전자, 3D 메모리 전략 'CUBE' 비트밀도 10배, 전력효율 7배 높여
하이닉스, 메모리 용량 확대에 초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의 성능과 용량 한계를 넘을 새로운 기술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K하이닉스도 여러 메모리를 묶거나 연결해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커지는 처리 속도와 전력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와 세미콘 타이완에 따르면 최장석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팀장(상무)과 김호식 SK하이닉스 메모리시스템리서처 담당(부사장)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메모리 이그제큐티브 서밋' 연사로 나섰다. 최 상



삼성전자 최장석
DS 메모리사업부 상무



SK하이닉스 김호식
메모리시스템리서처 부사장

무는 3차원(3D) 메모리 전략인 'CUBE'를 처음 공개했다. 김 부사장의 발표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역할 변화와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을 다뤘다.

삼성전자가 이날 공개한 CUBE는 용량(Capacity)과 최적화(Utilization), 대역폭(Bandwidth), 전력·열 효율(Efficiency)의 앞 글자를 딴 전략이다.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을 확보하고, 칩 사이 거리를 줄여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데 초

점을 맞췄다. 최 상무는 이날 "3D의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터 1비트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라며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해 와트당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으면 인쇄회로기판(PCB) 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용량을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 메모리와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의 배치를 최적화해 데이터 처리 지연을 줄이고 대역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HBM도 3D 기술을 중심으로 성능을 끌어올린다. 삼성전자는 HBM4E 다음 세대인 HBM5의 성능을 HBM4E보다 2배 높이고 와트당 성능은 20%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열 저항은 20% 낮출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용량 확대와 데이터 이동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세미콘 타이완이 공개한 김 부사장의 발표 자료에는 여러 메모리를 묶어 쓰는 메모리 풀

링과 메모리를 추가로 연결하는 확장 기술 등이 포함됐다.

메모리 가까이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하는 근접 연산 기술도 담겼다. 데이터를 연산장치까지 옮기는 과정을 줄여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술은 AI 추론 확대로 늘어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장문맥 추론과 검색증강생성(RAG), 여러 AI가 함께 작업하는 다중 에이전트 등이 확산되면서 저장하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모리를 단순 저장장치가 아닌 AI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사는 AI 시스템별로 요구되는 메모리 성능과 용량에 맞춰 가속기와 메모리를 설계 단계부터 함께 개발하는 공동설계(코디자인)를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metro

삼성전기 1조 MLCC계약 따내 수주 규모 역대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고성능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1조원대 역대 최대 공급계약을 따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잇달아 확보하며 AI 서버용 MLCC를 중심으로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대형기업과 약 1조722억 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계약은 MLCC 장기공급계약 중 최대 규모다.

MLCC는 전자회로에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조절하고 부품 간 신호 간섭을 막아주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AI 서버용 MLCC는 일반 제품과 달리 고온·고전압 환경에서 24시간 가동을 견뎌야 하는 만큼 고품량·고신뢰성 특성이 동시에 요구되며, MLCC 가운데 기술 난도가 높아 소수 업체만 생산 가능하다.

글로벌 고객사와 잇단 장기계약 AI 서버용 중심 고부가 제품 확대
글로벌 10여사와 장기공급 계약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의 MLCC 설계 기술과 고온·고전압 환경에서의 제품 신뢰성, 글로벌 대형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AI 서버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이번 고객사를 포함해 글로벌 기업 10여 개사와 MLCC 장기공급 계약(LTA)을 체결한 상태다.

삼성전기는 지난 5월부터 실리콘 캐패시터와 AI 서버용 MLCC에 대한 약 3조3200억 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보와 고부가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AI 서버용 MLCC 시장은 2025년 14억 달러에서 2030년 58억 달러로 연평균 약 34%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 시장에서 4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며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기의 AI 부품 장기공급계약은 올해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글로벌 고객사와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캐패시터 장기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6월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 45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7월에도 글로벌 대형기업과 30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계약을 추가로 확보했다.



metro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김주애 후계자 내정 단계” /사진 뉴시스
▲與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상한 150% 유지”

▲李, ‘하루 차이’ 아동수당 논란 언급...정은경 “소급 검토”
▲공무원 노조, 보수 3.9% 인상에 “합의안 상한 반영 진전”

▲제주 30대女 사인 미궁 속으로...부경장 檢송치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노동 700명·경찰 215명